

영들의 테스트
고린도전서 12-14
by The Reverend Frances Taylor Gench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초대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강한 임재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가 영감에 이끌려 말을 할 때에 그것을 공동체가 멍하게 들으며 아무런 질문없이 고상한 그리스도(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¹ 도리어 초대 교회는 거짓 영감과 거짓 예언과 거짓 가르침의 위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그 주장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항상 뒤따르게 되고, 그 주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기 전에 검증되어지고, 비교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곤 했다. 모든 말과 주장들은 공동체 전체가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영들의 시험” 혹은 영들 분별함의 개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초기문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19-22** 을 읽어 보시오. 그들은 “영들의 시험”을 어떻게 하였는가? 그러한 분별을 위하여 어떤 기준이나 표준이 있었는가?

신약학자인 제임스 던 (James D. G. Dunn) 의 관찰을 통하여, 사도바울에 귀를 기울여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제 1 세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근원이 마귀로부터 오는 영감과 신뢰하지 못할만한 발언의 위험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했던 인물은 바로 사도바울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힘이라고 하는 어떤 예언을 직면할 때마다 그는 예언적인 영감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영감의 말씀이라는 보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예언적인 발언은 반드시 사려깊은 조사와 평가를 거쳐야 한다.²

신약성경에서의 크리스찬 예언에 관한 가장 심도있는 논의는 고린도전서 12-14 에 등장한다. **고린도전서 12:4-11 과 14:29** 를 읽은후, 사도바울이 “예언”과 영들의 “분별”에 관하여 얼마나 사려깊은가를 관찰하라. 이 구절에 나오는 “분별” 혹은 “분변”의 헬라 단어들은 어떤 사물의 자체를 인식하는 ‘구별하다’ ‘분간하다’ ‘판단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영들 분별함의 의미는 누가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누가 받지 않는가를 아는 것이다.

바울은 예언에 관하여 여러 장에서 말하는데 특별히 14 장에서 강조하고 있다. **고린도전서의 첫절(14:1)과 마지막 절들(14:39-40)을 읽어보시오.** 바울은 분명히 예언자 외에도 교회의 교인들이 예언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울이 정확하게 “예언”에 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그는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가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지 알리라고 가정한다), 예언의 기능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4:3 과 14:31** 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향상, 권면, 위안, 배움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언은 장래를 예측하는 것과는 혼동해서는 아니된다; 대신,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크리스찬 공동체 안의 교화와 권면과 위안과 배움과 지도와 안내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³

고린도전서 12:10 에 의하면, 영들 분별함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다. 그러나, 던(Dunn)은 이 문제에 관한 바울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몇가지 기준들을 밝혀 주었다.⁴:

1. 복음을 통한 테스트, 혹은 이미 드러난 계시들의 기준
2. 예언자들의 특성과 활동, 혹은 사랑의 테스트
3. 공동체가 누리는 혜택의 테스트

복음의 테스트, 혹은 이미 드러난 계시들의 기준

고린도전서 12:3 읽으시오. 이 구절은 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실용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예수가 주!’ 라는복음에 대한 간단한 고백이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 중에 “예수는 저주할 자”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2:3 은 고린도의 상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테스트가 다른 곳에서 다르게 고안되어진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에 보면, 복음으로부터 발생하는 테스트는 그리스도론 보다는 크리스찬의 자유에 관한 테스트이다 (**갈 5:1 참조**).⁵ 사도바울은 복음에 관한 교회의 최초의 경험과 반응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갈 1:6-9 참조**,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받아들인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책망함). 이러한 기준은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1:1; 2:24; 4:1-6** 을 읽어 보면, 테스트가 공동체 안의 중요한 그리스도적 갈등에 관하여 다루도록 고안 되었다. “태초부터” 로 시작하는 복음에 관한 교회의 최최의 경험과 반응에 관하여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점을 주의해 보시오.

예언자들의 특성과 활동, 사랑의 테스트

두번째 시험은 도덕적 시험으로 바울의 가장 중요한 기준들 중의 하나이다: 예언하는 자들이 그들이 받은 선물은 행사함에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바울의 유명한 사랑장(고전 13 장)이 성령의 선물을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2-14 장의 중간에 있다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훌륭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의 관점에서, 그것은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의 은혜는 비은혜라는 것이다.⁶ **고린도전서 13:4-7** 읽고, 그 안에 담긴 논쟁적인 의도를 주의해 보라. 또 같은 도덕적 기준을 제기하는 갈라디아서 5 장을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의 찬가”와 같은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갈라디아서 5:1, 13-26** 을 읽으시오.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에 합당한 열매들을 보여주도록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기준은 **요한일서 4:7-12, 20**,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구별할 수 있다는 **마태 7:15-20** 의 예수님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 마지막 구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명령을 예언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삶의 모습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은 의심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예언과 가르침은 존중받을 수 없다. (마태 12:33-37 참조).⁷

공동체가 누리는 혜택의 테스트

바울의 분명한 기준인 공동체의 유익을 통한 테스트는 고린도전서 14 장에 나오는데 7 번이나 반복된다. 이것은 “세워 나가는” 아니면 “교화하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이) 테스트이다. **고린도전서 14:1-15 의 기준들을 주의깊게 보라. 또 14:22-25 의 전도를 위한 기준을 주의깊게 보라.** 던(Dunn)은 이 중요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무엇이든지 세우지 않고, 교회의 일치를 해치거나 교인들을 상하거나 교회 밖의 사람들을 당황케하는 무슨 말이나 행동은 교화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말이 아무리 영감이 있고 카리스마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시되고 거절당함이 마땅하다.”⁸ 이러한 기준들이 다른 곳에서는 바울에서 처럼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에 병행하는 공동적인 강조가 나오는데, 이는 마태가 제안하는 올바른 가르침을 판단하는 방법은 전체 공동체의 여론이거나 동의이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기능은 공동체의 어느 멤버로부터 검증받을 수 있는데, 논쟁이 발생하면, 가르치는 기능은 교회 전체에 의하여 검증받아야 한다. 이러한 테스트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마태 18:15-18 을 읽어보라.**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평가받고, 검토되고, 비평을 받도록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의 참여로부터 나오는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분별의 과정이 동참하기를 꺼리는 자체가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 것의 징조이다. 그래도, 분별의 과정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사실, 고린도전서 12-14 에서 성령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울은 오늘의 상태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요한 1 서도 부분적인 지식에 관하여 암시한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요일 3:2)

토의와 묵상을 위한 질문들

- * 고린도전서 12-14 의 “영의 테스트”를 공부하고 나타나는 당신의 반응을 나누라.
- * 어느 본문이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 왔으며, 왜 그런가?
- * 위의 본문들 및 강조점들과 현재 미국장로교가 겪는 분별을 위한 씨름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을 당신은 발견하는가?
- * 본문과 강조점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토의 가운데서 어떠한 통찰력이 떠오르는가? 어떤 질문들이 남았는가?
- * 바울로 하여금 마지막 말을 하게하라: 고린도후서 13:5 의 충고를 읽고 이에대한 반응들을 서로 나누어라.

¹ James D. G. Dunn, "Discernment of Spirits-A Neglected Gift," in *Witness to the Spirit: Essays on Revelation, Spirit, Redemption*, ed. Wilfrid Harrington (Dublin: Koinonia Press, 1979), p. 87.

² James D. G. Dunn, "Discernment of Spirit," p. 82.

³ J. Paul Smapley,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X (Nashville: Abingdon, 2002), p. 960. The same is true of Old Testament prophets, who were not primarily in the business of predicting the future, but of exhorting believers to remain faithful to God.

⁴ See James D. G. Dunn, "Discernment of Spirits," pp. 83-87; and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98), pp. 594-98. See also Dunn, *Jesus and the Spirit: A Spirit of the Religious and Charismatic Experience of Jesus and the First Christians as Reflected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CM/Philadelphia: Westminster, 1975; Grand Rapids: Eerdmans, 1997), ch. 9.

⁵ Dunn, *Jesus and the Spirit*, p. 293.

⁶ Fredrick Dale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 (Grand Rapids, Eerdmans, 1970), p. 295.

⁷ Mark Allan Powell, *God With Us: A Pastoral Theology of Matthew's Gospel* (Minneapolis: Fortress, 1995), pp. 84-86.

⁸ Dunn, *Jesus and the Spirit*, p. 296.